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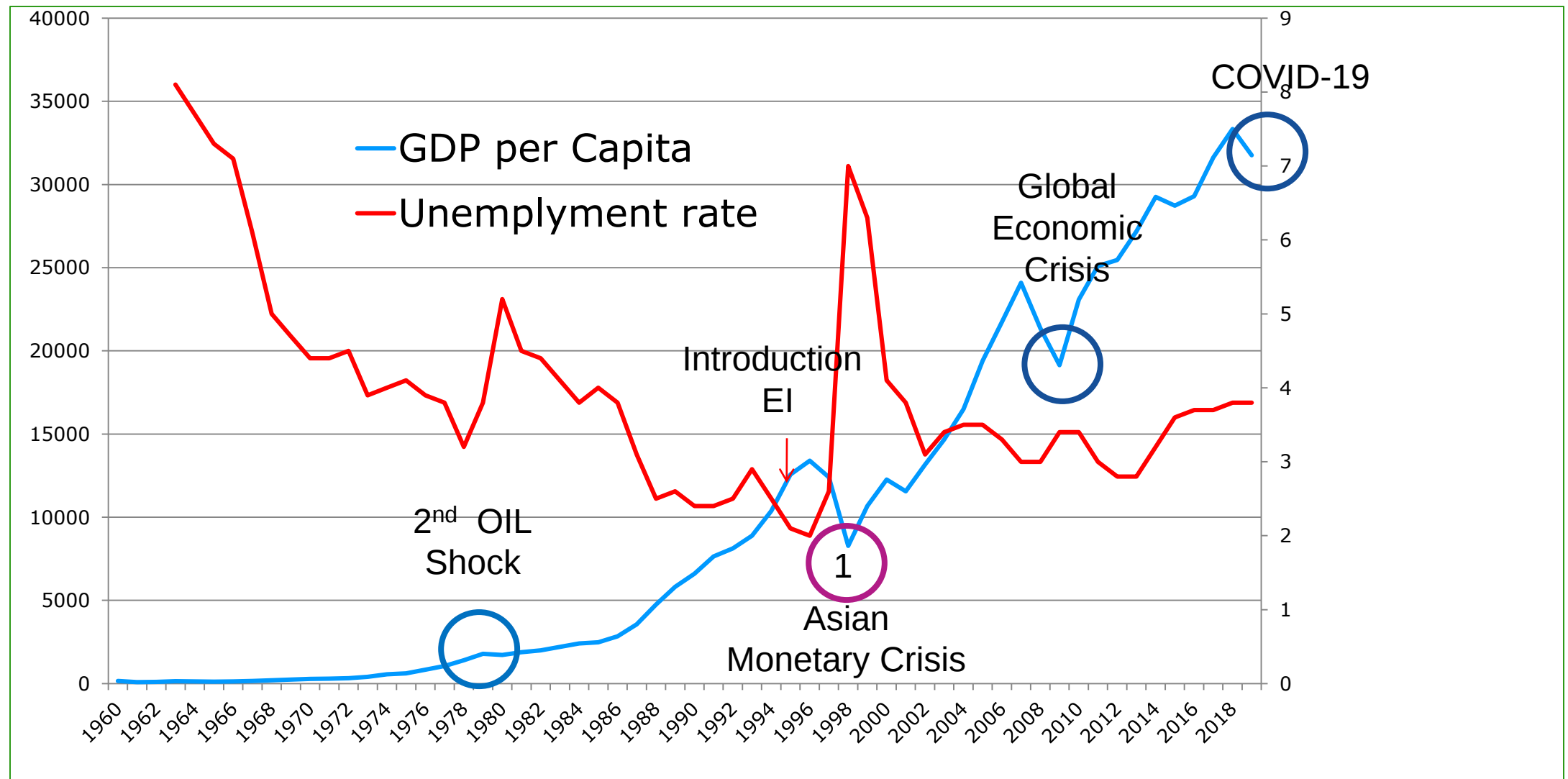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unemployment benefit schemes through digital channels in Asia

Sang Hyon Lee

Jul. 2021

UI and the role during the crisis



1998 Asian financial crisis and unemployment



취업박람회 꼬리문 人波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행사장에 들어가는 취업희망인파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행사첫날인 이날 새벽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 하루동안 10만여명이 다녀갔으며 대기업의 홍보팜플렛이 정오쯤 모두 동이나는 등 「취업전쟁」을 실감케 했다. <상보 8면> <金世九기자>

Unemploymen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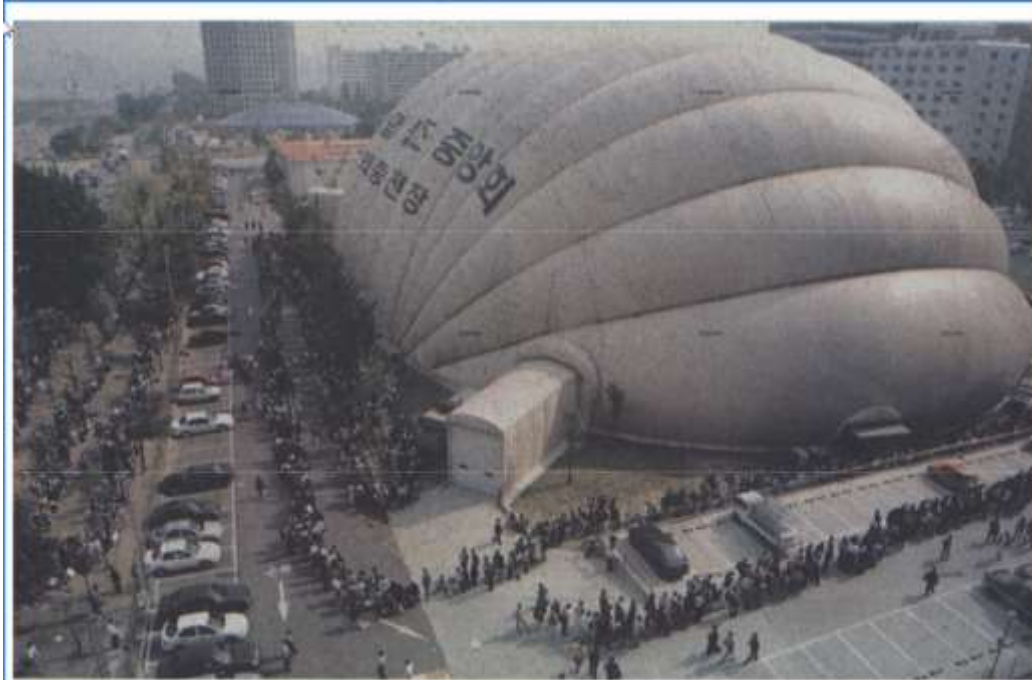
Feb, 1999

8.7%

Job Fair 1998

“100,000 unemployed visited job fair and ran out application form in one day”

Unemployment rate hit historic record 8.7%



수만명 꼬리 문 구직행렬

올 하반기 취업경쟁이 유례 없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
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에서 열린 (주)리크루트 주



The unemployed and parks

‘주인’ 바뀌는 탑골공원

30~40대 실직자 몰려 ‘노인쉼터’ 무색

서울 탑골공원도 이전 더이상 노인들만의 쉼터는 아니다. 마땅히 갈곳이 없어진 30~40대 실직자들이 하나 둘 탑골공원을 찾으면서 이곳의 오랜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공원 한편에서 말쑥한 차림으로 너털너털해진 신문을 보거나 허겁지겁이 허공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워대



정지원기자

와 장거나 바둑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공원 청소원 김모씨(51)는 「젊은사람들은 서로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할아버지들과는 달리 대개 혼자 서성이다 돌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이주승기자

실업시대 ‘새 풍속도’

월요일인 30일 낮 탑골공원에서 젊은 남자들이 한 노인과 젊은이가 장기를 두는 모습을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다.



Pagoda park became hot places for young unemployed. 100-200 young unemployed people gathering. Young people playing Korean chess with one old man in Pagoda park.

Mountains for the unemployed

National Park Services allow the unemployed enter the 18 national mountain parks for free to blow energy for unemployed to raise up again

실직-生保者에 국립공원 무료개방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달 1일 ~ 9월30일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차원에서 국립공원을 찾는 실직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국립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계룡산 △한려해상 △태안해안 △월악산 △월출산 △속리산 △소백산 △가야산 △덕유산 △내장산 △주왕산 △치악산 △다도해상 △변산반도 등 18곳.

실직자는 지방노동관에서 발급한 구직신청확인서를 제시하면 가족 2명과 함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02-540-1247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등산길목 취업박람회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은 22일 오후 서울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실직자들을 위해 야외 재즈공연을 곁들인 취업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박상선 기자>

Public library for the unemployed

실직자 도서관으로 몰린다

신문·잡지서 취업정보 얻고 책보며 마음 달래

허연 기자

공공도서관이 IMF 한파를 맞은 실직자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정장을 차려입은 채 공원을 배회하거나 산을 오르던 실직자들이 도서관을 찾아 무료로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취업정보를 얻고 있는 것.

지난 6일 오후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도서관에서는 30, 4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열심히 뒤적거리거나 인터넷에 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성인으로 보이는 40명 가량의 이용객 중 반수가 30대 이상이다. 구제금융 지원요청 이전보다 40% 정도 늘어난 수치다.

작년 말까지 한 광고기획사에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S씨(36)는 “처음 퇴직했을 때는 주로 집에 있었는데 리듬이 깨지고 나태해지는 것 같아 올해부터 도서관에 나온다.”고 말했다.

S씨는 “도서관에 나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달랠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영등포도서관측은 이들을 위해 작은 직업정보 코너도 만들었다. 구인·구직과 관련된 신문·잡지 기사를 오려 붙여놓은 정도지만 이용객들의 호응은 대단하다.

이 도서관 우병현 열람과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퇴직자로 추측되는 30, 40대의 이용이 눈에 띄

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는 22개 다른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시립 강남도서관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하루 5~6명 정도 눈에 띄던 30대 이상 성인 이용객이 20명 정도로 늘었다.

또 그 전까지 인기가 없던 취업이나 창업 관련 책의 대출이 늘고 정기간행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

그러나 아직 공공도서관이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 구실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도서관 관계자나 이용객들이 입을 모아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1053회 주택복권

Library become hot places for the unemployed.
The unemployed wearing formal dress whom wondered around the mountains or parks are now visiting library.

Unemployment and poverty, divorce, and homeless



밤새 쌓인 눈엔 긴 한숨 커켜이

실직노숙자 겨우살이 큰걱정

나흘새 두 차례나 눈이 내렸다. 실직 노숙자들은 눈 내리는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 일요일인 22일 아침 일찍 오랫동안 실직 노숙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서소문공원을 둘러 용산역 앞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보았다. 한 노숙자 텐트 입구에 놓인 운동화에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노숙자들의 수효가 며칠 전과 달리 크게 줄었다. 사연을 알아보니 이들 전 어느 사

회봉사단체에서 낮과 각목을 들고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실직자 쉼터에 들어오라며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는 것이다. 한 실직자는 "우리도 인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는데 그런 일이 대낮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며 "실직자들을 위하자는 것인지 실직자들을 볼모로 자신을 단체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30여개의 노숙자 텐트는 대부분 강제 철거되고 5개밖에 남지 않았다. 실직 노숙자들은 겨울날씨보다 사회의 물인정에 더 추위를 느끼는 표정이었다.

사진·글/변재성 기자

▶ 어디로 가나

경기도 포천의 한 프레스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거리로 나서게 된 장아무개 (40) 씨가 서울 서부역 밖에서 새우잠을 잔 뒤 밑새 덮었던 이불 등을 싣 보따리를 땅바닥에 놓고 눈덮인 공원들을 허탈함이 바라보고 있다.



◀ 앓랫목 생각 간절

서울 서소문공원의 실직자들이 어느 독지가가 전해준 도시락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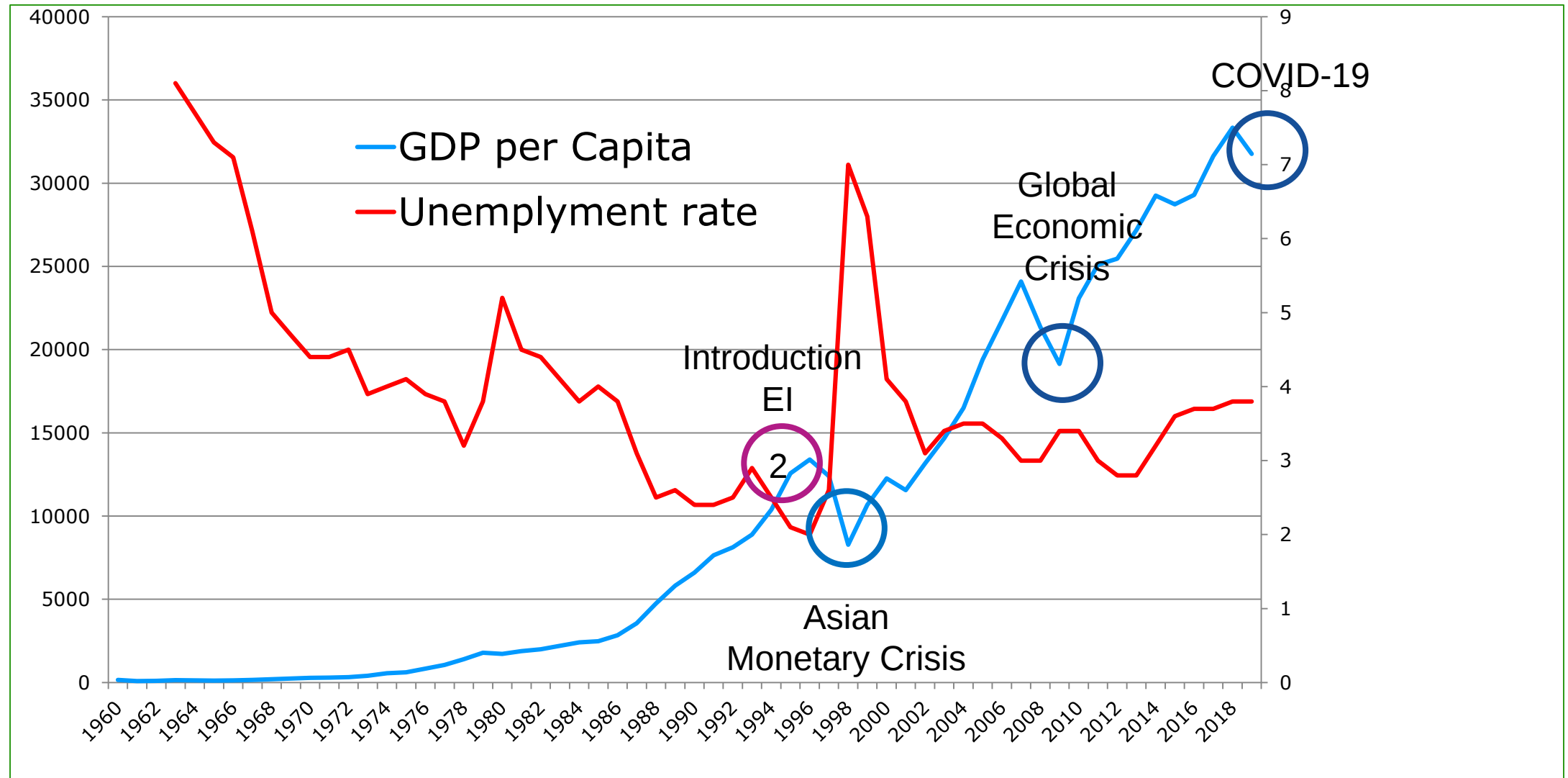


예천 아는듯 실직 노숙자들의 걸을 지키며 예찬을 함께 나누는 고양이. 실직노숙자 주변을 맴돌며 공갈 재롱을 부려 실직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얼어버린 발 노숙자들이 텐트 밖에 벗어놓은 신발 위에 밤새 눈이 소복이 쌓였다.

El introduced in 1995!



El introduced in 1995

- Paradoxically, El introduced during the sunny day preparing rainy day
- Growth rate was record high 9.2%
- Unemployment rate was 2.1%, complete employment
- UB fund stocked without spending, IMF request government budget constrain 170 BUSD 550BUSD

Labor office in 1998 and UB claim

- Unemployment benefit : People were shamed to be unemployed, didn't know they had a right for UB, so that 1,000 M USD of UB was not claimed in 1998



Labor offices were crowded after TV promotion on UB



붐비는 실업급여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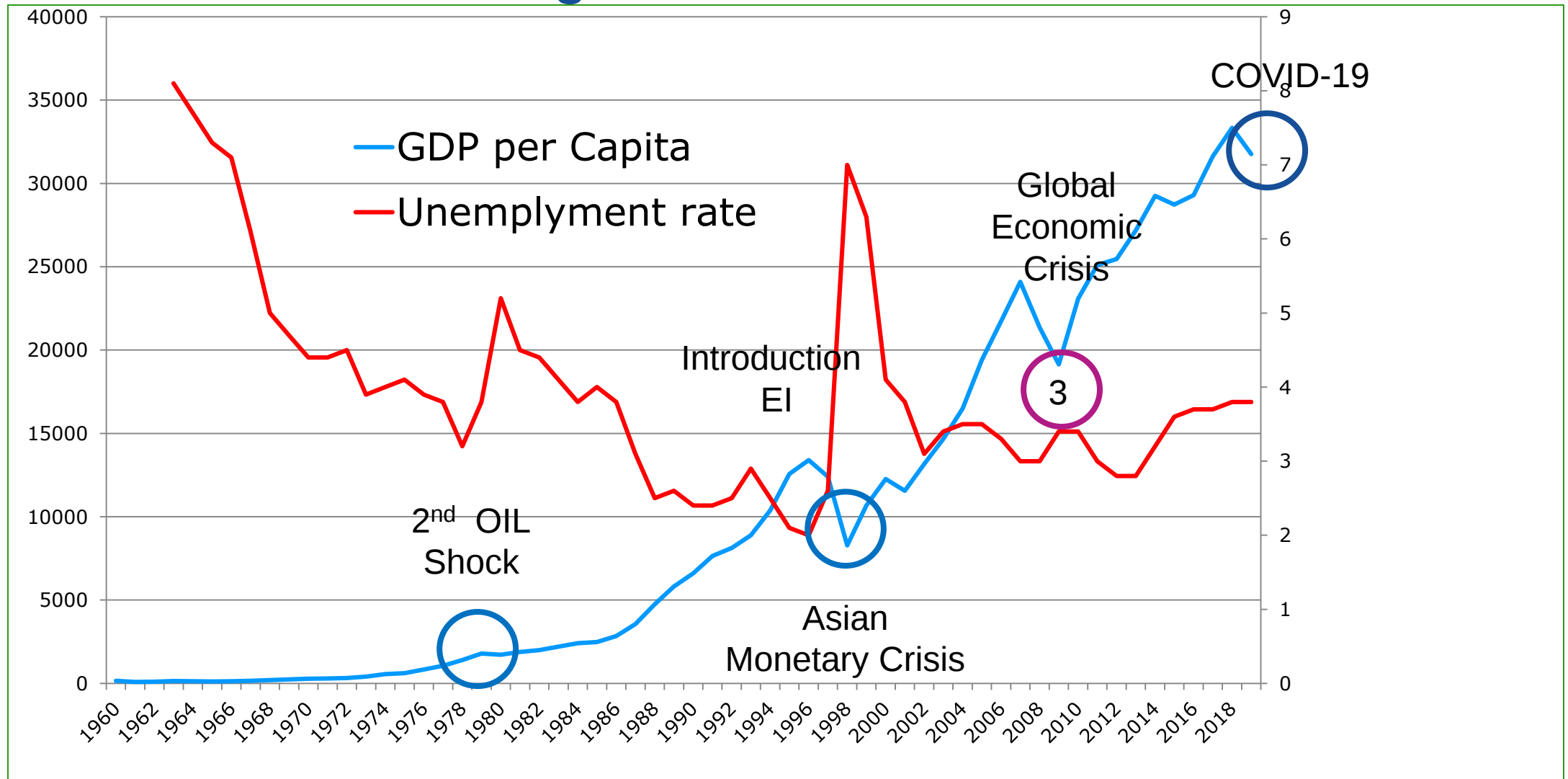
이훈구기자

7일 오전 서울북부노동사무소에 IMF한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몰려들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Creation of Modern PES

- Asian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gave an opportunity to develop Korea PES
- To challenges with the high unemployment benefit claimnants, Korea established the modern job centers quickly
- Increased the number of career counsellors 80(1996) → 3,000(2000)
- Establish KEIS for main organization research on employment
- Introduced web-based job matching services Wor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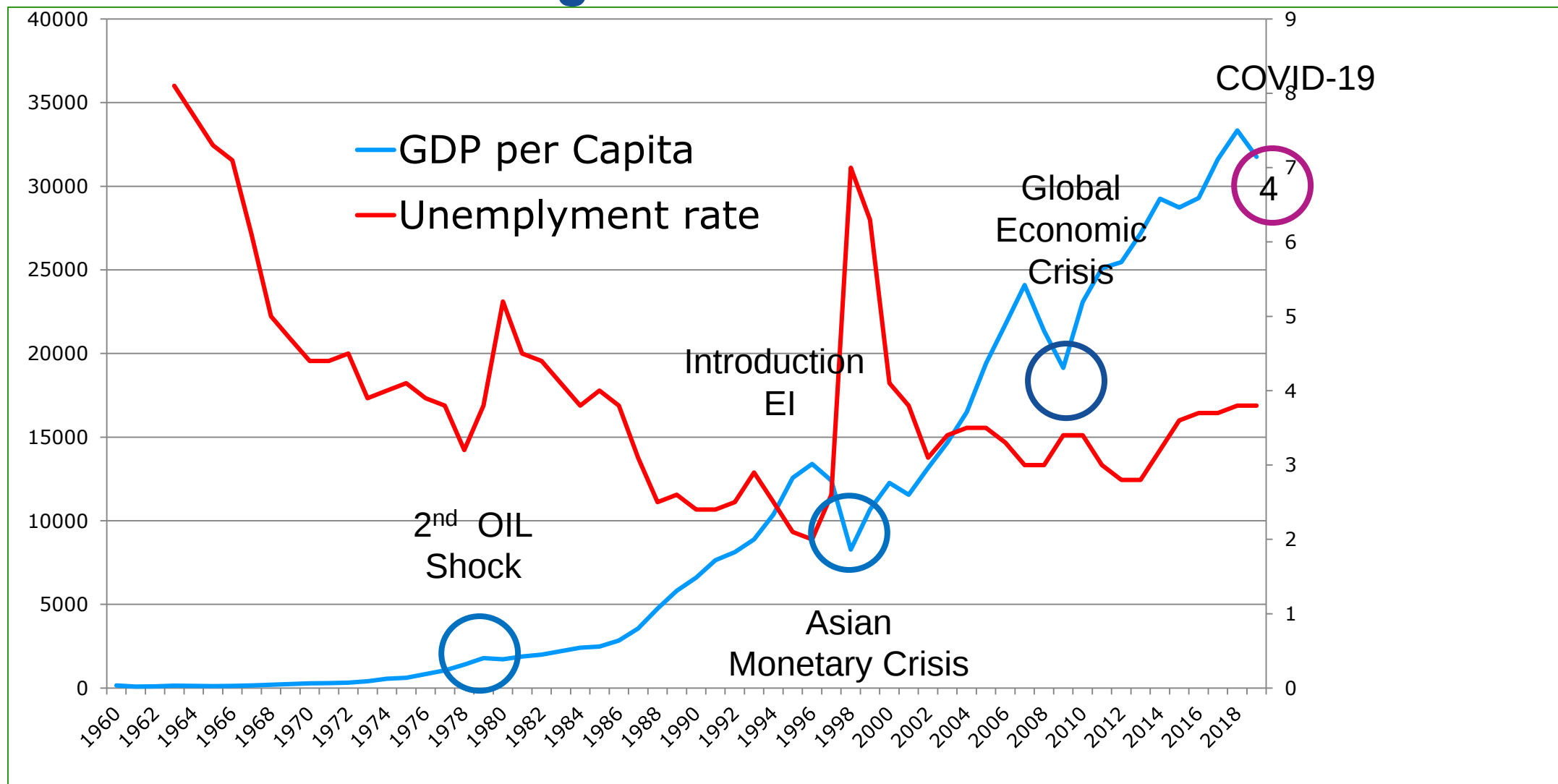
UI and the role during the crisis : 2008 Global Economic Crisis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Similar size of impact of GDP per capita as 1998 Asian monetary crisis. However unemployment rate was relatively stable and resilient recovery was possible
- To challenge with unemployment
- Higher additional 2,000 career counsellors
- Introduction of Work Sharing Programmes, WSP was very effective measure.

UI and the role during the crisis : 2020 COVID-19



2020 COVID-19 Pandemic

- Unemployment rates

Month	2019	2020
1	4.5	4.1
2	4.7	4.1
3	4.3	4.2
4	4.4	4.2
5	4.0	4.5
6	4.0	4.3
7	3.9	4.0

- Hired additional 750 staff

One stop services : UI, ALMP, + are conducted at PES



Job centers of Korea



GYM and Karaoke room

Nambu Job center facilities



Job centers in the world



Job centers in the world

SWEDEN



CANADA



FRANCE



GERMANY



GERMANY



Staff of PES

	Staff	speedy employment No of Job Placements
Korea GoyongBokji Plus Center	5,000	1.5 Million
Japan Hellowork	28,000	1.9 Million
France Pole Emploi	56,000	2.5 Million
Germany Bundesagentur fur Arbeit	100,000	2.5 Million



UK 56,000, USA 60,000, Netherland 15,000

Online Job center WorkNet

Overall Status (As of July 2019)

Cumulative Download number
of Worknet Application

5.5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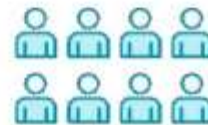
Valid number of
Job-Openings

900,000



Daily Average number
of Visitors

780,000



■ Visitors by countries : Germany 200,000, Japan 460,000,
France 120,000, Netherlands 180,000

Registered Integrated
Corporat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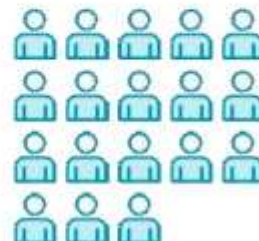
1.84 million



■ Youth-friendly Unicorn Company : 1,127

Worknet Members

18.36 million



Job-Information
Connection of nation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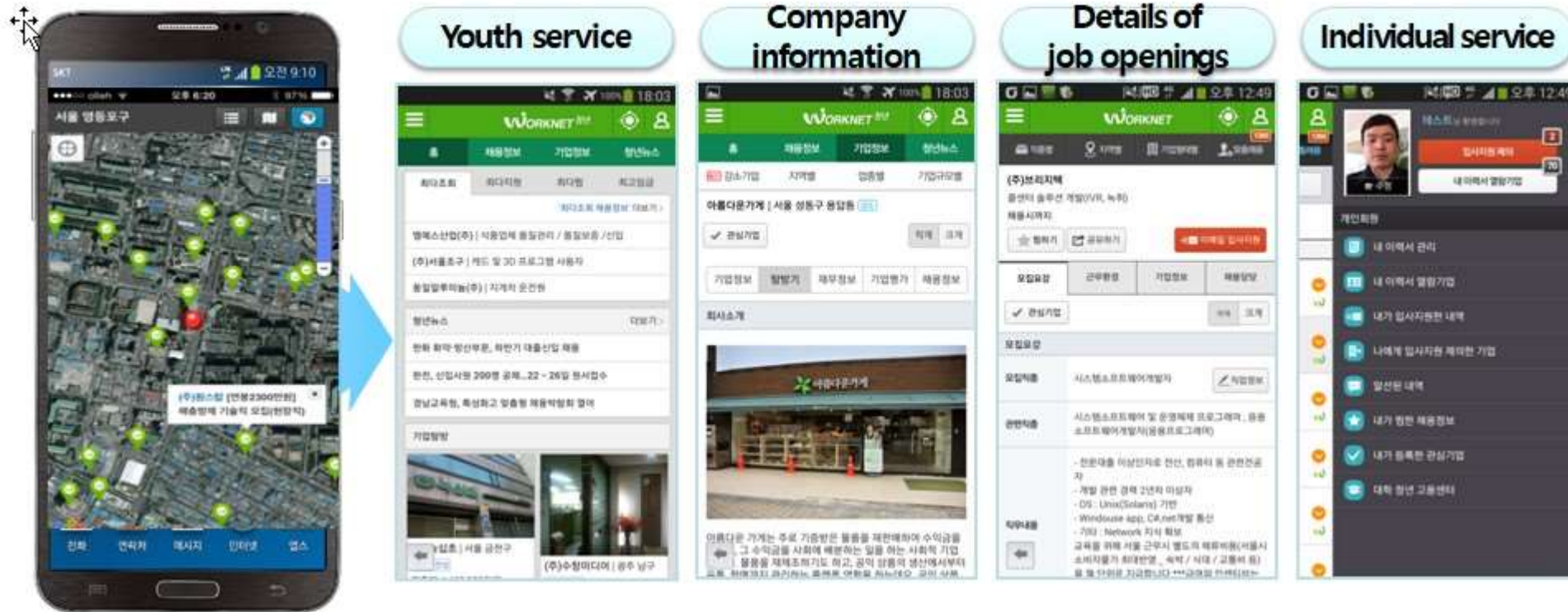
154 Places



■ Public Institution 22, Local Worknet 122, Private Portal 10

Mobile PES

- Introduced in 2011, 430,000 Users per Day
- Service available regardless of place and time
- Speedy job pla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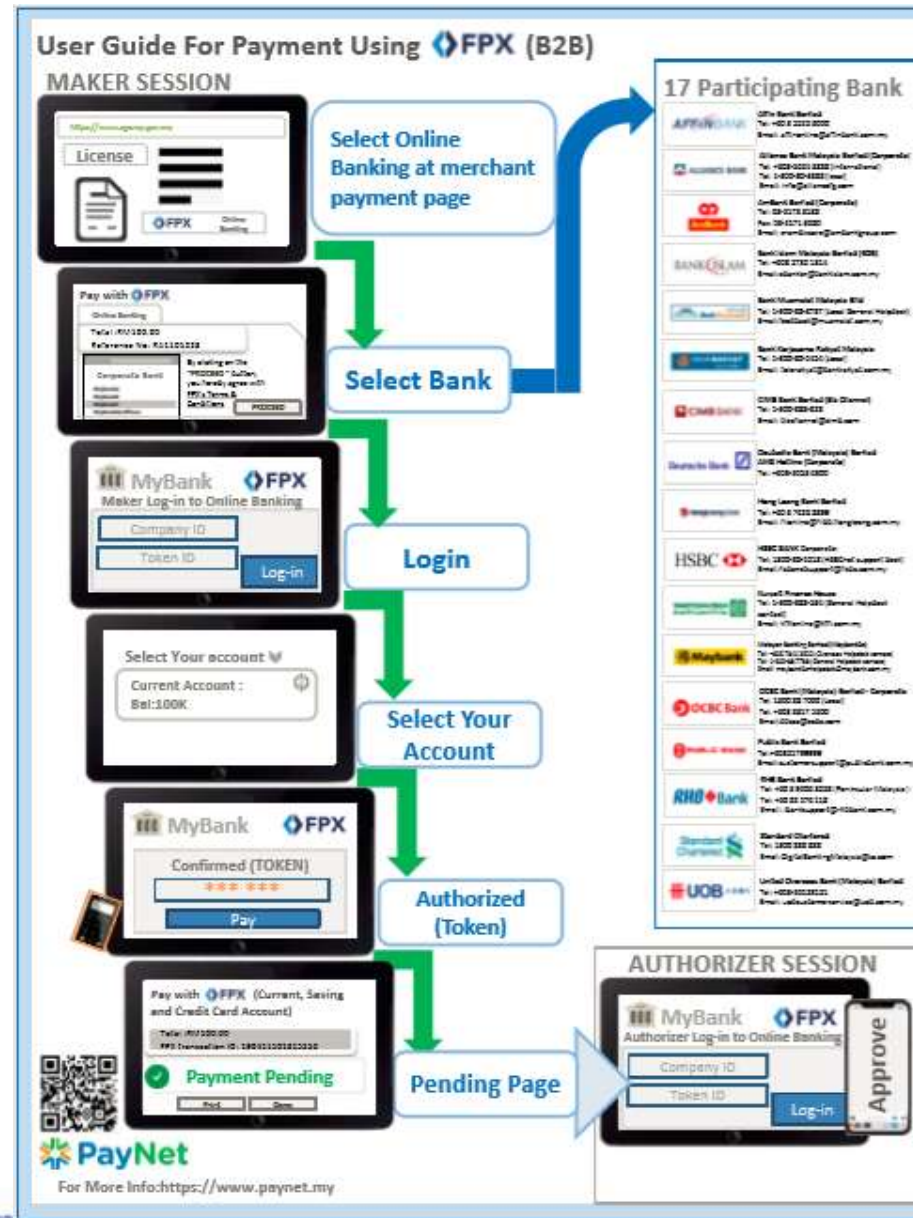


Mobile 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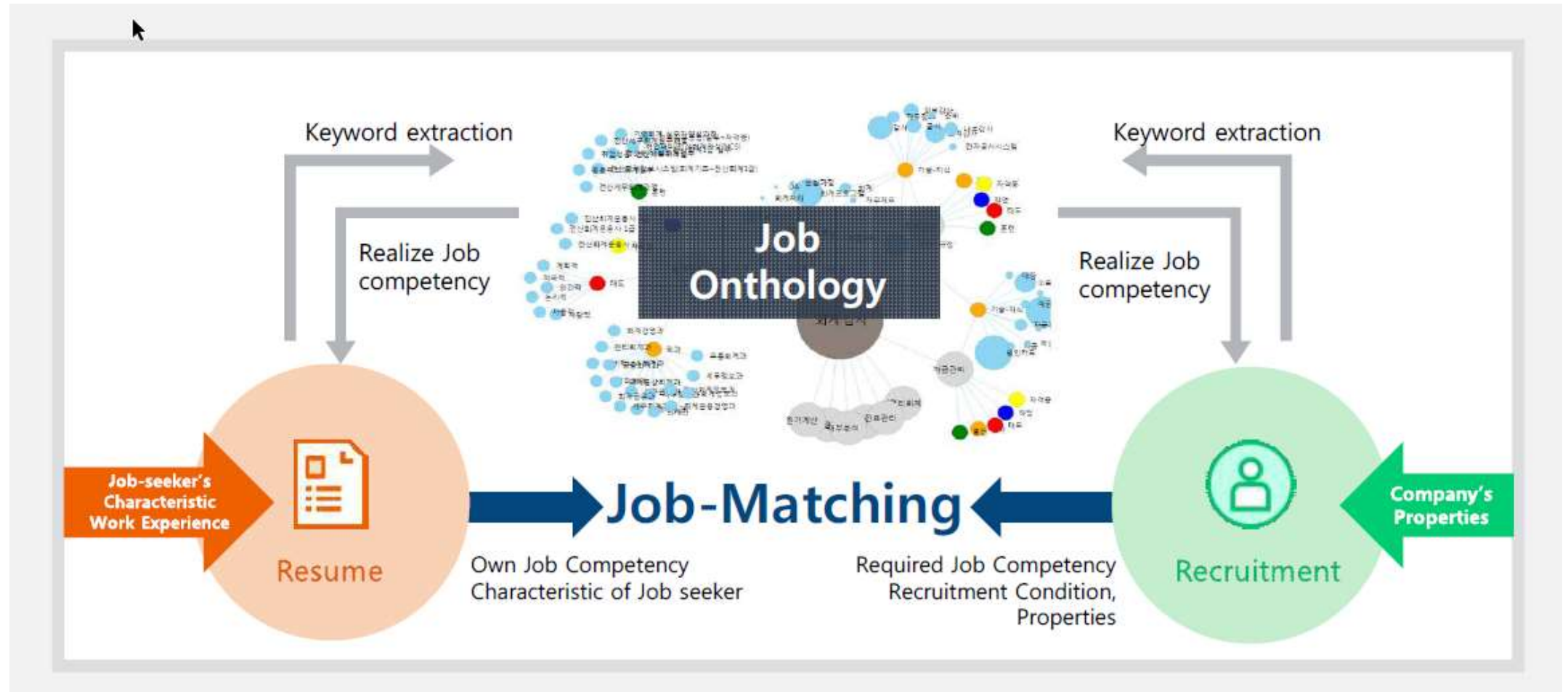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Claim
Introduced in 2014



Case of Malaysia
Payment of Contribution
Through mobile and online
using banks
accounts



AI job matching since 2020



International Cooperation

- ILO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KEIS training on unemployment insurance (2006 – present, annual)
- ODA : upgrading job matching portal(3M USD)
Vietnam(2017-2019), Cambodia(2018-2020), Mongol(2019-2021), Sri Lanka(2021-2023)
- IDB-KEIS job matching portal consultation(2016-2018) Brazil, Chile, Peru, Barbados
- ADB job matching portal consultation Bangladesh, Uzbekistan (2020-2021)
- WAPES vice president(2012 - present) The 9th World Congress(2012) and Workshops(2010, 2011, 2015, 2017)
LMI training 2016, PES consultation Peru(2016), Cambodia(2020)
- PES consultation Peru(2017), Sri Lanka(2017-2019)